

## ■ Solvay社, PVC 재활용 기술의 돌파구 마련

### ○ 벨기에에 본부를 둔 화학물 제조업체인 Solvay社는 실용성을 고양한 PVC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함

- 지난 주 Solvay社는 PVC를 재활용할 수 있는 ‘Vinyloop’ 기술을 응용하는 상용화 플랜트를 세계 최초로 건설하기로 한 계획을 발표하였음
  - 연간 처리량 8,500 톤 규모로 이탈리아의 페라라에 공장이 신축되며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임
  - 유럽 전역에 유사한 규모의 공장을 10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미 여러 투자자들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함
- 이를 통해 Solvay社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폴리머(중합체)의 재활용을 상당 수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
### ○ ‘Vinyloop’ 기술의 특징

- 사실 이 기술은 혁신적인 기술은 아니고 기존의 기계적인 재활용 기술을 응용해 실용성을 높인 것임
- 기존 공정에, PVC와 PVC에 첨가된 모든 첨가물을 용해시키는 과정을 추가하여 여타 기계적인 재활용 기술을 이용한 것보다 훨씬 순수한 재활용 PVC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함
- 전선 폐자재와 신축성이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하는데 특히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

### ○ 향후 전망

- ‘Vinyloop’ 기술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는, PVC 재활용율은 최대 18%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EU의 PVC 재활용정책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
기 준 학(02-3669-4097, hiemjhki@shinbiro.com)

